

편집후기

벌써 편집장을 맡은 지 1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다. 그런대로 여태까지는 큰 지면없이 발간을 해왔다. 모두 편집위원들 덕분이다. 올 한해도 좀 더 볼거리가 많은 high quality의 뉴스레터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인강 편집장

편집위원직을 맡은 지 어느덧 2년이 훌쩍 넘었다. 골과는 거리가 먼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편집의 일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내가 소속된 기관을 위해 조금이나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그리고 새로운 호가 출간될 즈음마다 함께 하는 회식 자리도 즐거웠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분께 그 바톤을 넘겨줄 때가 된 것 같다. 다행히 허석문 박사님께서 다음 편집위원을 맡아주시기로 하셨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이정엽 편집위원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간다는 것을 요즘 다시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리학부 편집위원을 맡은 지도 어느새 1년을 넘긴 것을 보면 더욱 그렇고요. 다행히 저의 원고 청탁에 흔쾌히 응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이번 호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바쁘신 가운데도 글을 열심히 써주시는 필자분들이 있기에 ‘과학의 지평’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종철 편집위원

항상 원고 청탁에 잘 응해 주신 모든 계산과학부 박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기를 대신할까 합니다.

-신용현 편집위원

정성어린 글로 이번 호를 빛내 주신 모든 필자분들과 ‘과학의 지평 42호’가 무사히 완성될 때까지 그 배후에서 고생해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윤애 편집기자